

# 찰주전자 (Teapot) 의 조형이념과 형식

The Formative Idea and Form of a Teapot

김 연 화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Kim Youn Hwa**

Hongik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범위
- 1-2. 연구절차 및 방법

## 2. 찻주전자의조형성 진단

- 2-1. 조형 개념과 실체
- 2-2. 조형 형식 분석

## 3. 형상적형태( Gestalt)로서의 구조해명

- 3-1.조형이념과 형식의 상호연계성
- 3-2.형태환에의한 찻주전자의 형태적 특성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찻주전자가 지닌 조형성은 조형예술의 새로운 의미이고 형상이며 이것의 조형이념과 조형형식은 새로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찻주전자와 같은 실용적인 욕구와 심미적인 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형상으로서의 인공적인 조형물은 구성과 구조의 유기적이며 기능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것의 관계를 상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만듦의 세계를 창출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형구조와 조형의 개념과 표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찻주전자를 해석, 진단하는 것은 이것이 지니고 있는 조형성에 나타난 물질적 표현성과 구조로서의 형식과 시각요소로서의 상징을 대상으로 상호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형태를 이루는 것과 재료의 설정 및 기법 개발을 통한 선행적, 창조적 조형표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찻주전자의 조형 개념과 실체를 분석하고 형상적 형태로서의 구조해명을 통해 이것이 지니고 있는 유형과 문양의 실제적 조형 형식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찻주전자가 지니고 있는 자연미, 의식성, 기하학적 조형미와 함께 정갈하고, 명확한 인위적 조형성의 실용 가치를 확인하였다. 그럼으로써 찻주전자에 나타난 조형의 이념과 형식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조형창조 과정에 새로운 형상과 가치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주제어

조형이념, 조형형식, 새로운 형상

## Abstract

The metaphysical formality of teapot is a new meaning in formative arts and its idea and forms of formality are the best way to improve life environment.

Artificial sculpture like teapot which satisfies both practical use and aesthetic desire has impact on the functional and organic relations between construction and structure.

In that sense, it is an important thing to reinterpret the making of the physical concept a metaphysical structure has through their correlational meaning and to create another possible world of the making.

In interpreting and analyzing teapot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idea of formality and formal structure, we focus on the understanding of changing correlations about symbols as materialistic expressivity shown on metaphysical formality and forms as a structure and emblem as visual element and as a result, we could recognize creative and preceding expression activities of structure through selections of elements and techniques development and combinations of for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mality concept and essence of teapot and the explanation of its structure as a formal structure, a comprehensive formality of types or patterns of tea pot was studied.

Through thi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eapot shows the balance among its natural beauty, consciousness beauty and geometrical beauty of formality and also gives a value as practical use of simple and clear artificial formality accompanied by artless art.

The result is that to understand a system of structure and the idea of formality expressed on teapot exists as new shapes and values in the course of creation of structure.

**Keyword : Formative idea , Style,  
New shapes**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찻주전자 ( Teapot )가 지니고 있는 조형성에 나타난 물질적 표현성과 구조로서의 형식과 시각요소로서의 상징을 대상으로 상호관계의 변화에 따른 해석을 통해 형태를 이루는 것과 재료의 설정 및 기법 개발을 통한 선행적, 창조적 조형표현 활동을 이해하여 찻주전자가 지닌 조형 표현의 가능성과 조형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12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동, 서양의 문헌자료 89점을 중심으로 찻주전자의 발전 과정에서의 형식과 표현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대별, 유형별, 문양별로 나타난 조형이념과 형식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 1-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연구의 절차는 장면( Scene definition )을 이해하며, 조형성의 관계설정을 위해 유형별, 문양별로 탐색 ( Exploration ) 하여 구조와 체계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조형성으로서의 구성요소와 시각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재해석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찻주전자가 지닌 조형 표현은 물질적 재료를 사용하여 사물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예술미로 성립되며 시각, 촉각을 대상으로 하는 객체로서 이것에는 이념이 감각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며 주체가 지니는 독특한 형상적 형태 ( Gestalt )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찻주전자가 지니고 있는 조형 형식과 이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형상이 지니고 있는 유형과 문양의 보편적 내용을 통해 실제적 조형 형식을 구조로 파악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 Study literature)- 문헌에 나타난 선행적 구현사례( Law data - Image cuts 89점) 분석 진단하여 논거에 대한 범용성을 확보함.

2. 시뮬레이션 ( Simulating and Categorizing) -

조형형식의 비교, 판별에 의한 조형구조를 해명하고 개연성에 대한 논리적 규범을 추출함.

3. 형태환에 의한 분석 및 평가 - 구체적 조형 표상으로서의 찻주전자가 지니고 있는 형태적 특성의 재해석

## 2. 찻주전자의 조형성 진단

### 2-1. 조형개념과 실체

실체( Object )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려는 창조 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조형 개념의 전개는 직관과 자연의 이상화 작업이 형식적으로 통일과 조화를 인식하는 감각적 지각 활동에서부터 쾌적한 조형요소 관계를 갖도록 미감을 충족시켜주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것에는 실체를 만드는 기술을 응용, 인간 생활의 쓰임을 위한 가공품에서부터 어떠한 것을 만들고자하는 영원한 탐색, 즉 잘 만드는 재주에서부터 기교, 양식, 정서, 사상적 내용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면을 총괄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형상으로, 시대를 나타내는 유기적 조형성을 기본 방법으로 한 공간적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찻주전자의 조형표현은 환경적인 시대풍토와 종교, 표현태도와 양식 및 수법, 표현 재료, 작가의 조형의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표현대상의 주체와 조형의 영역에 따라서도 제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기능적 예술로서의 찻주전자이든 생활조형 활동으로서의 공예이든 광의의 공예이든 조형예술의 장르속에서 디자인적 조형 (실용조형)이니 예술적 조형이니 하는 단어들에 구사되어 왔으나 오늘날 메이저 아트( Major Art )나 마이너 아트 ( Minor Art, Lesser Art )라는 식의 구분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되어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양식, 즉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형예술에 대한 발전 과정은 재료를 다루는 인간기술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한 필요의 충족이 근거가 된다. 실용을 목적으로 하던 생활을 목적으로 구현되어 지던 소위 일방적인 의미의 조형이란 생활환경에 의한,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환경을 위한 형과 형태 갖는 일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형을 예술적으로 창조하고 나

아가서 생활을 위하여 형을 만들어 온 긴 역사를 거쳐 오늘날의 식(食)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 왔다. 20세기초 경험철학에 의거한 심리학자 듀이( J.Dewey )는 “모든 인간은 창조적인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예술적 표현활동이라는 것을 조형제작 활동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예술표현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물(物)’으로써 객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료와 가공에 걸친 기법에 의하여 표현하려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조형예술은 물리적 재료를 사용하여 사물을 유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립되며 시각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서 그것에는 이념이 감각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며 독특한 현상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형 표현이란 인간이 지닌 최초의 정신적인 기본 활동이고 감각적인 형상의 창조이며 카오스 ( Chaos ) 로부터의 이탈이다. 이것에는 이념으로서의 형과 같은 감정표현에서 성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달하는 물로서의 형에 성공해야 하는 당위를 지니며, 그러한 결과물은 특수한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며 동시에 개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널리 쓰이게 된다.

자연미는 완전성 ( Effortless perfection )과 자발성 ( Spontaneity ) 에 의해 이루어지나 찻주전자와 같은 가공적 인공미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조형성과 시각성, 공간성을 함께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조형대상은 물리적, 심적, 시간적, 환경적 공간으로서 매스 ( Mass )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성립된다.

구체적 경험에서 얻어진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체계로서의 찻주전자 조형표현이란 결국 개념과 실용성, 자아와 비자아를 매워줄 수 있는 시도로서 인간성, 재료의 합리적 가공성, 재치와 기지가 깃들여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곧 실용가치로서의 찻주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인간 생활문화 속에 깊게 침투될 수 있는 인간 감각활동의 도구로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

### 2-2. 조형 형식 분석

찻주전자가 지니고 있는 조형 특성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 지역적 특성과 함께 실용적, 장식적, 표현적, 정서적으로 다양하게 의도되고 계획되면서 대중적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찻주전자문화에 대한 자리 매김은 단순히 차를 마신다는 수분 습득의 생리적이 며 신체적인 기본 기능 충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 라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생활 의 제 장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필요 요소로 등장 되었 고 그에 따른 속성들은 점점 더 다양하게 융복합 되 고 다원화되기에 이르렀다.

범용적인 관점에서 공동사회에서의 인간관계 구 축과 함께 건강, 미용, 정신 치료, 의욕향상, 시력 강 화 및 건강 피로 회복 개선의 증진 등 그 역할과 위 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차 연관 산업과 사업 및 상품화대상 (Business & Domain )의 대상 영역이 급속하게 글로벌화 되고 있다.

형식 변천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조망할 경우 18세기 초반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서양 의 경우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차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며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 로 하는 차 문화의 일반화는 18세기 영국의 「Tea house」 설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차 문화 발전의 전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송 ( 960년대-1275년대 ) 대에서는 일부 상위층을 중심으로 차를 이용하여 왔고 일본의 경우 16세기부터 다도(자노유)문화가 일반인에게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찻 주전자를 포함한 주변기기는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고 일본의 경 우 다기류의 집기는 18세기후반부터 일반화되기 시 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차의 맛과 향 및 색을 지켜주는 찻 주전자에 도자기를 사용한 것은 당 ( 618년대- 907년 대 )대부터 시작되어 송과 명대에 이르러는 고품화 된 차가 잎차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자기 를 재료로 하는 찻주전자는 차 맛의 변질을 일부 방 지하고 차물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차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향기를 보존해 준 다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찻주전자의 유형별 구분은 < 표01 >에서 처 럼 형식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조형형상의 기본은 원추형, 원주형, 구체의 모양을 중심으로 형 상화 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되는 차의 종류와 특성

에 따라 각각 구별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포트는 유럽형은 조재(mixing) 덜어내는 (Pouring) 용도로 경우에 따라 차와 커피를 동시에 사용하고 저그는 주둥이가 넓은 주전자로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형태 이다. (Pear like body) 또한 머그의 경우에는 손잡이가 큰 원통형 찻잔을 의미한다.(Heavy drinking cup)

그러므로 찻주전자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 형상은 몸체 (Body), 주둥이 ( Spout ), 손잡이 ( Handle ), 뚜껑부 ( Lid ) 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구 분	용도별 내용
내용에 따른 구분	홍차용(Teapot), 커피용(Coffeepot), 초콜렛용 (Chocholattepot), 밀크주용 (Possetpot) 등.
크기/형태 에 따른 구분	포트(Pot), 주전자(Kettle), 저그(Jug) 피쳐 (Picher), 머그 (Mug) ,단지/항아리 등
재료에 따른 구분	자기(Porcelain), 은, 유리, 주석 (Tin), 알루미늄, 납석 등

<표 01> 찻주전자의 내용별, 형태별, 재료별 구분

찻주전자의 기본 조형은 <표 01>에서 처럼 내용 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홍차 주전자는 몸체가 비교적 낮으며 경우에 따라 주둥이 부분이 뚜껑부분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커피 주전자의 경우는 홍차 주전자에 비해 몸체가 길고 크며 일반적으로 원주형으로 이루어진다. 핸들모양 은 귀 형태 ( Ear shape handle)의 형상이 보편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 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작은 모양의 주전자가 등장되 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의 행태, 습관, 선호에 의하여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시장에는 개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무한대로 생산되 고 있는 실정에 있다.

### 3. 형상적 형태(Gestalt)로서의 구조 해명

#### 3-1. 조형이념과 형식의 상호 연계성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 문화는 차와 연관되어 있는 식문화의 특성을 인위적

이거나 의도적이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 가장 인간적인 존재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의미론적 문화의 정체성 중에는 활동, 관습과 함께 전통적 방식의 풍속과 같은 고유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료 생활 전반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형이념과 형식의 연계성으로 구성되는 차 문화와 사용 도구들은 일상생활과 문화형식의 기본요소들이 상호 작용 하며 나타나게 된다. 즉, 차 문화는 인간의 존재를 융합시키는 범용적 수단이며 보편적 행동을 표출하는 의사소통의 언어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경험하고 발견시켜주는 상징과 수단이며 태도로서 범용적인 형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차와 함께 우선적으로 연계되는 도구에는 <표 02>처럼 동서양의 기후적, 지역적 특성과 생활 장면이 시대별, 계층별, 목적별, 생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조형적 특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역 구분	유형별 내용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표 02 > 찻주전자에 나타난 화예문 (Floral Pattern) 유형(17~19세기)

( DavidBattie, (1990), Sothebys Concise Encyclopedia of Porcelain, p.50,148,180, Passion de porcelaines, Raynand, 2001, p.73,89 )

일본의 경우 찻주전자, 긴 찻숟가락, 그릇 두 개

차 짓는 대나무 막대 등의 다기 세트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는 다도의 기본 도구가 되었다. 유럽의 경우 찻주전자, 설탕그릇, 우유단지, 물그릇, 찻잔, 잔 받침대 등으로 세트 ( Family Set ) 로 일체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차의 유형에는 기후별,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지역간, 국가간의 생활스타일에 따라서도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역 구분	유형별 내용
중국	
일본	
유럽	

<표03> 청화 화예문양 (Blue delpi Floral pattern) 찻주전자 구분.

( DavidBattie, (1990), Sothebys Concise Encyclopedia of Porcelain, p.122,145,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1, 국립중앙 박물관, 2007, p.35,43, 스테판 뮐시오르 뒤랑외,(2001), 차, 창해, p.41-45 )

차 맛과 함께 차의 온도를 가장 실용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찻주전자의 경우 형상적, 표현적, 장식적인 면에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진화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전승된 조형형태 표현의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하며 의식적 노력과 함께 이용방법 및 사용빈도에 따라 시각적, 비시각적 현상의 체계 구현 및 「형태」로 객체화 시키는 접근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15세기 초 중국 명조(Ming Imperial)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되어진 청자 찻주전자는 고가의 원료와 색채의 정갈함으로 인해 생산초기부터 매우 귀중하고 품위 있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표03>의 중국의 찻주전자처럼 형태는 자연주의와 쯤 부디즘(Zen(禪) Buddhism), 음양오행 사상과 같은 종교적, 철학적 이미지의 구조를 띄고 있다. 특히 대나무는 시작과 성장, 장수, 절개, 건강을 상징하며 모란은 전통적인 민간사상의 풍수, 기(氣)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감, 영혼, 정신 등을 중시하여 찻주전자의 주요 모티프(Motif)로 등장되고 있다.

19세기 초에 등장되는 중국의 찻주전자와 같이 찻주전자의 몸체와 손잡이가 일체화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국적인 도자문화의 정체성이 표현된 사례가 된다. 이것은 화예문양(Floral decoration) 뿐만 아니라 중국풍의 산수 (Chinoiserie landscape)의 형상들이 시적인 감흥으로 사실적 표현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표출해 내기 때문에 향후 유럽풍의 산수화(European landscape)형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의 동양권은 서로 인접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차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범세계적으로는 중국, 인도, 실론 섬 등이 차 문화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1755년 덴마크 왕실의 지원으로 설립된 로얄 코펜하겐(Royal Copenhagen)사는 현재까지<그림 1>처럼 완전 수작업으로 그린 청화화에 도자로서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도자의 청화재료는 한때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으므로 현재에도 유럽의 고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청화가 유럽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귀중하게 대접받고 명성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찻주전자에 나타난 청화의 화예문은



약

18세기 중엽의 유럽풍의 영향을 크게 준 시누아리 스타일 자기(Chinoiserie English Style Porcelain)에서도 주요재료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양식 (Contemporary Modern

<그림1> 청화화예문

Style)무문에서 찻주전자 수작업 제조

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등장되고 있다.

시대구분	유형별 내용	예술사조 및 양식
12C		918-1392 고려삼강청자 (한국)
15C		1368-1644 명조 (중국)
17C		토기도자 (Redstone ware pot)
18C		1636-1912 황조 (중국) 1392-1910 조선조 (한국)
18C		1740 동양양식과 영국풍의 혼성양식
18C		시누아리 스타일 자기 (Shinoiserie English Style porcelain)
18C		유럽풍의 화예 장식 (European floral decoration)
18C		프랑스풍의 양식 (French Provence)
19C		1750 터키풍의 기하학적 식물장식 1830 네오로코크 양식 (Neo Rococo Style)
19C		1840-1862 제국양식 (Empire Style)



<표04> 찻주전자의 예술사조 및 형식 변화

( Dawn Jacobson *Chinoiserie*(1993), Phaidon. p.50,101, Dawn Jacobson *Chinoiserie*(1993), Phaidon. p.202, (1973), 「Dictionary of Design & Decoration」, Collins London & Glasgow, uk. (1996), Naturalistic Floral Decoration on XVIII Century Ceramic」, Editrice Milo, Italy. p.87,212, Robin Hildyard, (1999), *European Ceramics*, Victoria & Albert Museum, uk. p.47,68,69,76,94,108,119,128,135, 아름다운 우리 문화제1, 국립중앙박물관, 2007, p97, 국립중앙박물관, (1976), 한국민예미술, 평화당, p.328,332 )

12세기 초에서 부터 21세기 현대에 이르는 찻주전자의 조형형식은 과거 900년 동안의 개괄적인 예술사조와 양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원시 농경사회에서부터 현대의 지식기반 유틸리티스 ( Ubiquitous ) 창보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찻주전자의 유형별 내용은 1850년-1914년의 예술공예 운동 ( Art & Craft Movement)에서부터 1715~1820 년 사이 영국과 프랑스의 리젠시 스타일(Regency Style)등 1978년부터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 ( Post -modernism)에 이르기까지의 약 16개의 예술사조를 거치게 된다.

본연구의 주제가 되는 찻주전자의 조형 이념 및 형식과 연관 되어있는 주요 예술 사조 및 양식을 대 별하면 19세기의 로코코 양식과 1920년대의 아르테 코양식 및 1960년대를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형 양식에 이어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까지의 중요한 4개의 예술사조의 이념과 함께 형이상학적조형성 으로서의 조형이념과 형식이 정점을 이루는 15세기 에서부터 18세기의 명, 청에 이어 시누아리 스타일 찻주전자 및 현대의 찻주전자 탄생의 전성기를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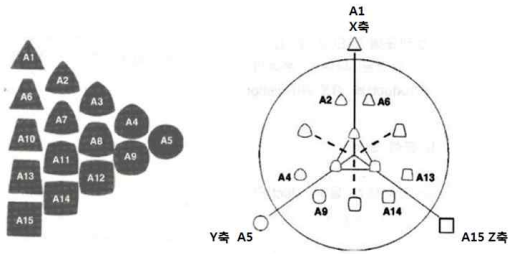
<표04>의 양식변화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한국 고유 고려 상감청자는 12세기 초 효시로 등장 되는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주며 상감청자의 기법으로 이 념과 장식성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형이 상학적 구조의 내면에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시대사 상과 기본사상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미, 의식미, 기하학적 조형미의 균형과 함께 민간신앙을 통해 무기교의 기교로서 정갈하고 성실, 명확한 인 위적 조형성의 실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3-2. 형태환에 의한 찻주전자의 형태적 특성

형상적 형태구조의 해명은 형의 기본형인 삼각, 사각, 원에의해 구성되고 이것에 의한 기본입체인 원추형(X축), 원주형(Y축), 구형(Z축)가 지니고 있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둥글게 배열한 형태환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3>에서 찻주전자의 형상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형을 형태환은 산업디자인 트렌드 예측을 위한 전략시스템(TTSS)구축과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의 형태분석 및 전개방법에 의한 체계배열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배열시킨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점위화 (Positioning) 시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찻주전자를  $\Delta \square \circ$ 의 내측배열을 중심으로 형태 특성별 22개의 샘플을 그룹핑(grouping)한다.
2. 일차 그룹 지어진 내용을 찻주전자 형태환의 기본 배열에 맞게 대상물에 평균화된 위치로 자리매김 한다.
3. 찻주전자의 그룹 지어진 내용별 형상변화 내용을 유형별, 시대별로 분석, 진단한다.
4. 형태환에 의한 배열에서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변화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된다.





<그림2> 형태환의 기본체계와 내축(X,Y,Z축) 배열  
(기본형을 중심으로한 배열(좌), 3단계 내축배열(우))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찻주전자가 지니고 있는 형상적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X축의 원주형 구조는 주로 12세기부터 17세기초반에 분포되어 있고 Z축의 구형은 전형적인 일반형을 이루면서 특히 18세기를 전후하여 다양하고 화려하게 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주형은 자기와 금속재를 중심으로 20세기를 전후하는 근대, 현대에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다기세트의 형상으로 기능성과 품질, 전통성과 감각, 전통공예와 생산디자인 요소들이 구현 되는 형이상학적특성을 지니면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는 <그림3>에서 처럼 원주형의 경우 커피포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높이가 큰 것은 초콜릿 포트가 나타나고 있다. 원주형에 가깝고 낮은 높이는 티팟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기본 입체의 창시자인 그리스 고대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절대적인 형과 상대적인 형으로 구분하여 기본형(Platonic solid)이나 기본형태로 이루어진 형태는 구체적인 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형과 형태의 기본이 되는 삼각의 구조형태야 말로 형태의 기본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찻주전자와 같은 실용적인 욕구와 심미적인 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형상으로서의 인공적인 조형물은 구성과 구조의 유기적이며 기능적인 관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구조가 지닌 형이하



<그림3> 기본체계로 배열된 찻주전자의 형상적 분포도

학적 개념의 구체화 과정과 함께 양자의 관계를 상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만듦의 세계를 창출하여야 한다. 결국 찻주전자의 조형성은 개념적인 해석으로서의 실제적 본질에 대한 외형적 양식을 뜻한다.

#### 4. 결론

새로운 조형이념과 조형형식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가있다. 조형예술로서의 찻주전자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필요불가결의 매우 밀착된 도구로서 이것에는 정서적, 대인적, 생리적, 위생적 측면에서 자연 발생된 인간 환경과 적응에 대한 모든 사고와 의식 및 형태가 상호관계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찻주전자에 나타난 조형성의 의미는 생활적, 경제적 필요조건이 되므로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상과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발견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에 나타난 형상학적 분석 사례는 찻주

전자의 현상적 형태는 조형이념으로서의 일반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형의 실체가 문명서나 정신 풍토를 형성해 가는 사명으로 자연과 생활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지역적 특성을 지닌 정체성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둘째, 찻주전자가 지니고 있는 조형형식의 조건(목적, 소재, 구조, 미적 표현수단 등)을 충족시키는 것은 실용적인 이미지로서의 존재가치를 의미한다.

셋째, 찻주전자 구성과 구조를 위한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는 조형적 양식 변화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미감성과 독창성의 발휘를 위한 하나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해명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넷째, 장식과 패턴에 나타난 공통적 상징성과 표현의 미는 다의적, 복합적인 조형사고 및 문화적, 지역적 민족성과 함께 표현 의지의 상관적 관계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찻주전자에 나타난 조형이념과 형식은 수많은 사고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공예, 디자인 창조활동과 같은 새로운 만듦의 세계를 개척하는 일종의 실험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1976), 한국민예미술, 평화당, p.328,332
- 아름다운 우리 문화제1, 국립중앙박물관, 2007, p35,43,97,
- 스테판 델시오르 뒤랑외,(2001), 차, p.41-45
- 한석우외, (1998), 산업디자인 트렌드 예측을 위한 전략시스템(TTSS)구축과 인터페이스개발에 관한 연구, 지식경제부, p.93,94
- DavidBattie, (1990), Sothebys Concise Encyclopedia of Porcelain, p.50,148,180
- Passion de porcelaines, Raynand, 2001, p.73,89
- DavidBattie, (1990), Sothebys Concise Encyclopedia of Porcelain, p.122,145
- Dawn Jacobson Chinoiserie,(1993), Phaidon. p.50,101
- Jacobson Chinoiserie,(1993), Phaidon. p.202
- Naturalistic Floral Decoration on XVIII Century Ceramic」, Editrice Milo, Italy. p.87,212
- Robin Hildyard, (1999), European Ceramics, Victoria & Albert Museum, uk. p.47,68,69,76,94, 108,119,128,135,